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음악분야 전개상의 제문제*

A Study on the Music Schedules in the 4th Edition of KDC

한 경 신 (Kyung-Shin Hah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KDC 제4판 음악분야 전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II. KDC 음악분야 전개의 변천 | 1. 要目の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III. KDC 제4판 음악분야 전개의 분석 | 2. 細目の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1. 개정방침 | V. 결론 |
| 2. 要目の 분석 | |
| 3. 細目の 분석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670 음악분야 전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 개정판의 음악분류 전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십진분류법 초판부터 제4판까지의 음악분야 전개의 변천과정과 제4판의 개정방침을 살펴보고, 제4판 음악분야 전개상황을 요목과 세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분류전개에서 음악주제 지식의 내용과 특성을 토대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concerning music schedules of KDC. The object is especially arrangement of 670 music in the 4th edition of KDC. In this stud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670 music division from the 1st edition to the 4th edition of KDC were examined first as the backgrounds. Then the expansion aspects and their problems of 670 music division in the 4th edition of KDC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e findings, some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s were proposed. These problems of music division of KDC originate in the lack of professional understanding of music, structural problem of KDC itself, and very comprehensive and contradictory revision policy. To make the KDC improved as standard classification scheme of Korea, mutual cooperation of the classifiers and specialists in music is inevitable.

* 본 논문은 1998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I. 서론

韓國十進分類法(이하 KDC)은 DDC와 NDC 등 기존의 십진분류표를 기초로 동양·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한국도서관협회에 의해 간행된 우리나라의 표준분류표이다. 본 분류표는 1964년 5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1966년의 수정판, 1980년의 제3판을 거쳐 1996년에 이르러 제4판까지 발행되었다. KDC 제4판은 제3판 이후 약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6년만에 발행된 것으로 너무 늦은감이 있다. 그러나 오랜 준비기간, 주제별위원회를 통한 분야별 책임개정, 방대한 전개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최근의 학문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수정과 보완을 통한 개정을 통하여 보다 훌륭한 우리의 표준분류표로서 발전시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현 개정판인 제4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 구성부문별 및 주제별로 검토·연구하므로써 다음의 개정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1996년 제4판이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박옥화¹⁾와 김자후²⁾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행된 바 있다. 이 중 박옥화의 연구에서는 철학류의 주제를, 김자후의 연구에서는 보조표·본표·상관색인 및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몇년동안 계속 음악분야 분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참고문헌 참조) 이를 위한 선행연구 조사 중 KDC의 음악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1966년 수정판의 음악 중국악부분(분류기호 679)만을 대상으로 한 李輔亭³⁾에 의한 연구³⁾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DC 제4판을 대상으로 필자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바 있는 음악분야로 한정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해 봄으로써 다음 개정판의 음악분류 전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먼저 KDC 제4판 음악분야 전개분석의 배경으로서 초판부터 제4판까지의 음악분야 전개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제4판의 개정방침 및 음악분야 전개상황을 要目과 細目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한다. 要目과 細目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이유는 음악이 670이라는 하나의 綱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된 본 분류전개에서 음악주제 지식의 내용과 특성을 토대로 문제점 역시 要目과 細目으로 구분하여 확인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박옥화.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철학류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3호('97. 9), pp.7-22.

2) 김자후. "KDC(한국십진분류표) 4판에 대한 제언." 《도서관학논집》 제27집('97. 겨울호), pp.369-389.

3) 李輔亭. "韓國傳統音樂資料의 十進分類方法論." 《문화재》 제9호('75), pp.41-49.

II. KDC 음악분야 전개의 변천

KDC에 있어서 음악분야의 분류는 1964년의 초판부터 현재의 제4판에 이르기까지 제7류인 예술류 내의 한 綱, 즉 670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것은 DDC와 NDC의 음악분류가 각각 700 예술 내의 한 綱인 780 Music과 760 音樂으로 분류되어온 것이 KDC에서는 예술류의 분류기호가 600으로 바뀐에 따라 670으로 분류기호만 바뀐 것으로서 DDC와 NDC를 그대로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DC 및 NDC와 마찬가지로 KDC 역시 문학·미술과 함께 추상적인 예술로 고려되는 음악분야가 하나의 綱으로 분류되므로써 막대한 양의 음악자료를 분류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구분력이 약한 십진식분류의 한계로 인한 음악의 분류와 이들 분류표의 편집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KDC의 예술류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과 산업의 추구로 달성된 정신의 여유에서 생기는 인간생활의 美化和 향락에 그 특성을 두고 건축·조각·회화 등 미술부문을 비롯 음악·연극 및 오락·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綱의 구분 및 배열순서는 역시 DDC와 NDC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NDC에 더욱 가깝게 전개한 것이라 한다.⁴⁾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음악분야 전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초판부터 제4판까지의 예술류 綱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변함이 없이 <표 1>과 같이 전개되어 있다.

<표 1> KDC 초판-제4판까지의 예술류의 전개

600	藝術
610	건축술
620	조각
630	공예, 장식미술
640	서예
650	회화, 도화
660	사진술
670	음악
680	연극
690	오락, 운동

KDC 초판 670 音樂은 음악의 이론 및 기법(671), 음악의 종류(672 종교음악, 673 성악, 674 극음악, 675 기악합주) 및 악기의 종류(676 건반악기, 677 현악기, 678 취주악기)와 국악(679)

4) 이병수.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8. p.24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1호)

등으로 전개하고 있다. 즉 洋樂을 주로 한 성악(672-674)과 기악(675-678) 및 국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⁵⁾ 이와 같은 要目の 구분배열은 주로 DDC를 기초로 한 것이나, 우리의 國樂을 하나의 要目(679)으로 배정한 것은 NDC에서 일본음악인 邦樂에 하나의 要目(768)을 배정한 것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國樂을 배정할 要目を 확보하기 위하여 DDC의 788(취주악기)과 789(타악기) 2개의 要目を 압축하여 678에 취주악기를 두고 그 중 한 細目인 678.9에 타악기를 배정한 것이 DDC와 다른 점이다.

KDC 670 음악의 분류전개에 있어서 참고로 한 DDC는 KDC의 초판연도나 원안인 DDC가 무릇 16판을 거듭할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초판서문의 기록을⁶⁾ 고려해 볼때 DDC 제16판(1958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KDC와 DDC의 이들 음악분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KDC와 DDC의 음악분류의 비교

<KDC 초판>		<DDC 제16판>	
670	音樂	780	Music ⁷⁾
671	음악이론 및 기법	781	Theory and technique of music
672	종교음악	782	Dramatic music
673	성악	783	Sacred music
674	극음악	784	Vocal music
675	기악합주	785	Instrumental ensembles and its music
676	건반악기	786	Keyboard instruments and their music
677	현악기	787	String instruments and their music
678	취주악기	788	Wind instruments and their music
679	國樂	789	Percussion, mechanical, electrical instruments

<표 2>의 KDC와 DDC의 음악분야의 비교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KDC의 음악분류 要目の 전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DC를 기초로 우리의 國樂을 삽입하여 분류한 것이다. 다만 DDC에서 783에 배정한 종교음악을 종교류(분류기호 200)와의 조기성을 고려하여 672에 배정하므로써, 성악을 그대로 따라 올려 673에 그리고 극음악은 674에 배정한 것과⁸⁾ 國樂에 하나의 要目を 배정한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DDC의 음악분류에서는 주로 용어상의 변화

5) Ibid., p.256.

6)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64. p.iii.

7) Melvil Dewey ; Benjamin A. Custer 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6th ed. New York : Lake Placid Club Education Foundation, 1958. vol.1, p.118.

8) 이병수. op. cit., p.256.

와 분류항목의 확장 및 변경전개만을 지켜온 제19판 이후 음악분류 전개에 대한 철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제20판의 음악분류는 DDC 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철저히 새롭게 전개된 완전개정표(complete revision)로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C 음악분야의 要目の 전개에 있어서 초판부터 제3판까지는 DDC 제16판을 기초로 전개된 분류가 전혀 변함없이 똑같은 전개를 하고 있다. 또한 제4판 역시 내용상으로는 678 취주악기 내의 678.9 타악기가 676 건반악기와 함께 이동되어 전개된 것외에는 똑같다. 그리고 용어상에서도 674 극음악이 극음악, 오페라로 변경된 것 외에는 똑같은데, 이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KDC 초판-제3판과 제4판의 음악분야 要目の 전개비교

<초판-제3판>		<제4판>	
670	音樂	670	音樂
671	음악이론 및 기법	671	음악이론 및 기법
672	종교음악	672	종교음악
673	성악	673	성악
674	극음악	674	극음악, 오페라
675	기악합주	675	기악합주
676	건반악기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
677	현악기	677	현악기
678	취주악기	678	취주악기
679	國樂	679	國樂

다음으로 음악분류의 각 要目에 따른 細目の 변천과정을 각 細目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70 음악에서의 細目전개는 초판부터 제3판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이 670.1 음악철학 및 음악미학, 670.7 연구 및 교수, 670.9 음악사만이 전개되고 나머지는 공기호로 남아 있다. 그리고 제4판에 와서는 670.7 연구 및 교수는 지도법 및 연구법으로 용어상의 변화만 이루어졌고, 670.9 음악사는 평론을 추가하여 음악사, 평론으로 전개되었다.

671 음악이론 및 기법에서의 細目전개는 초판부터 제3판까지 671.1 음악원리, 671.2 악전, 671.3 화성·화성학, 671.4 대위법, 671.5 음악형식, 671.6 작곡·연주, 671.9 기타제목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리고 제4판에서는 공기호로 남아있던 671.8에 음악의 녹음을 추가한 것만이 이전 판들과 다르게 전개된 것이다.

종교류와의 조기성을 고려하여 672에 전개된 종교음악에서의 細目전개는 초판부터 제4판까지 변함없이 672.2 불교음악, 672.3 기독교음악, 672.4.9는 기타 종교음악으로 종교류 내에서의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1호)

240-290과 같이 구분하는 것으로 조기성을 갖고 전개되었다. 따라서 672.4는 도교음악, 672.5는 천도교음악, 672.6은 神道음악, 672.7은 바라문교·인도교음악, 672.8은 회교음악, 672.9는 기타 제종교음악으로 전개된다 할 수 있다.

673 성악에서의 細目전개는 초판부터 제3판까지 673.1 성악이론 및 기법, 673.2 합창 및 합창곡, 673.3 독창 및 중창, 673.4 민속음악, 673.6 단체가, 673.7 학생 및 교가, 673.8 가곡집, 673.9 국가 및 국민가로 전개되어 있다. 그리고 제4판에서는 공기호였던 673.5에 대중음악·대중가요·유행가가 추가된 것과 673.8 가곡집이 가곡으로 용어만 변경되어 전개된 것만이 이전 판들과 다르다.

674 극음악에서의 細目전개는 초판부터 제3판까지 674.1 오페라 및 기타 극음악의 작곡, 674.2 가극, 674.3 오페레타, 674.4 칸타타, 674.5 부수극음악, 674.6 라디오음악, 674.7 텔레비전음악, 674.8 영화음악, 674.9 기타의 극음악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판에 와서 要目的 항목이 극음악에서 극음악·오페라로 변경됨과 동시에 674.2 가극은 가극·오페라·뮤지컬로, 674.3 오페레타는 오페레타(경가극)로 항목명을 보다 상세하게 하였다. 또한 674.7 텔레비전음악이 텔레비전음악으로 외래어의 우리말 표기에 맞게 전개되었다.

675 기악합주에서의 細目전개는 초판부터 수정판까지 675.1 이론 및 기법, 675.2 교향악단 및 관현악, 675.3 관현악을 위한 기타 음악, 675.4 독립전주곡, 675.5 협주곡, 675.6 실내악, 675.7 경음악단, 675.8 악대를 전개하고 있다. 제3판에서는 675.8 악대가 악대·리듬악대로, 제4판에서는 경음악단이 경음악·경음악단으로 항목명만 좀더 상세할 뿐 다른 변화는 없다.

676 건반악기에서의 細目전개는 초판부터 제3판까지 676.1 이론 및 기법, 676.2 피아노, 676.5 오르간, 676.6 전기오르간·반전기오르간, 676.7 리이드오르간, 676.8 아코디언, 676.9 기타 건반음악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제4판에 와서는 취주악기 내의 678.9에 전개되었던 타악기를 포함하여 要目的 항목이 건반악기에서 건반악기 및 타악기로 변경되었다. 또한 공기호였던 676.3에 하프시코드를, 676.4에 전자음악을 추가 전개하고, 676.8 아코디언은 기타 건반악기로, 676.9 기타 건반악기는 타악기로 변경하여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676.6 전기오르간·반전기오르간은 전자오르간·반전자오르간으로, 676.7 리이드오르간은 리드오르간으로 용어표현을 변경한 것 등 음악 내 細目 중 가장 많이 변경되었다.

677 현악기에서의 細目전개는 초판부터 제3판까지 677.2 바이올린, 677.3 첼로, 677.4 궁현악기, 677.5 하아프, 677.7 벤조, 677.8 쯤터, 677.9 기타 발현악기로 전개되어 왔다. 제4판 역시 내용상으로는 똑같다. 단지 677.5 하아프가 하프로, 677.7 벤조가 벤조로, 677.8 쯤터가 치터로 서양악기명을 외래어의 우리말 표기에 맞게 전개한 것 뿐이다.

678 취주악기에서의 細目전개는 초판부터 제3판까지 678.1 이론 및 기법, 678.2 트럼페트, 678.3 트롬본, 678.4 혼 및 기타 금관악기, 678.5 피리악기류, 678.6 금엽취주악기(舌樂器), 678.7

쌍금엽취주악기, 678.8 바스쌍금엽취주악기, 678.9 타악기로 전개되어 왔다. 제4판에서는 타악기가 건반악기와 함께 676.9 타악기로 변경됨에 따라 678.9는 공기호로 남게 되었다. 또한 678.2 트럼페트가 트럼펫으로, 678.4 혼이 호른으로, 678.8 바스가 베이스로 서양악기의 외래어 표기가 정돈되었다.

679 國樂에서의 細目전개는 우리의 민족음악을 전개한 것으로, 초판부터 제4판까지 어떠한 변경도 없이 679.1 국악이론 및 기법, 679.3 성악, 679.4 창극, 679.5 諸奏樂, 679.7 현악기, 679.8 취주악기로 전개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공기호이다.

이상의 KDC 음악분야에 있어서 초판부터 제4판까지의 각 要目에 따른 細目的 변천과정을 종합해 보면, 초판부터 제3판까지는 단 한가지 용어상의 변경외에는 똑같이 전개되고 제4판에 와서 개정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기는 하나 서양악기명의 외래어 표기를 정돈한 것외에는 이전의 판들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DDC 제20판의 완전개정판인 음악분야(780)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고려해 볼 때, KDC 역시 음악분야를 비롯한 각 주제분야에 있어서 현대의 주제지식과 특성 및 시대에 맞는 분류전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KDC 제4판의 음악분야 분류전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Ⅲ. KDC 제4판 음악분야 전개의 분석

1. 개정방침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는 한 나라의 표준분류법이란 그 나라의 끊임없이 발전하는 지식분야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에 있어 보편타당성이 있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아래 KDC 제4판을 위한 분류법의 개정방침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① 類·綱·目的 변경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② 새로운 학문발전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시켜 새로운 항목을 배정한다. ③ 3판의 정신을 가능한 한 살리되 細目부문은 개정 또는 전개한다. ④ 구표목 중 적절하지 못한 항목은 신항목으로 대치한다. ⑤ 과학기술분야 등 급변하는 주제는 필요한 細目を 과감히 전개·세분한다. 또한 이상의 개정방침을 기본으로 하여 DDC 제20판(1989)과 일본십진분류법(NDC) 제9판 시안 등을 참고하여 일선 도서관의 분류담당 사서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수용하여 전개하도록 하였다.⁹⁾

9) 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vii.

그러나 이상의 KDC 제4판을 위한 개정방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첫째, 類·綱·目的 변경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함으로써 초판부터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다른 방침들 특히 ②, ⑤와 상호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하겠다. 둘째, 새로운 학문발전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과학기술분야 등 급변하는 주제는 필요한 細目を 과감히 전개·세분한다고 하나 類·綱·目, 특히 綱·目的 변경을 피하고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모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제3판의 정신을 가능한 한 살린다고 하고 있으나 제3판 자체가 이전의 판에 대해 뚜렷한 미비부분 및 모순된 내용만을 보완하는데 그치므로¹⁰⁾ 이전 판들과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방침이 없이 이루어져 제3판의 정신 자체가 불분명하다. 넷째, DDC 제20판과 일본십진분류법 제9판 시안 등을 참고한다고 하고 있으나 어떠한 원칙하에 참고할 것인가 분명치 않아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다섯째, 전체위원회 및 소주제별위원회를 통한 여러차례의 심의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 등 급변하는 주제에 대한 애매한 다섯번째 방침에 각 주제별 또는 類別의 특성에 따른 분류방침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본 연구의 대상인 음악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要目과 細目的 분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要目的 분석

KDC 제4판 670 음악분야 要目的 분석에 앞서 상위류인 예술류를 살펴보면, 예술은 일반적으로 회화나 조각, 음악, 문예 등의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예술류에는 초판부터 똑같이 건축술(610)과 조각(620), 공예·장식미술(630), 서예(640), 회화·도화(650), 사진술(660), 음악(670), 연극(680), 오락·운동(690)의 綱들이 설정되어 있다. 한편 예술의 주요한 일부인 문학은 800에 별도의 주류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綱의 구분과 배열 순서는 DDC와 NDC를 기초자료로 하고 있으나, 그 배열순서는 DDC와 거의 일치하면서 綱의 구분은 NDC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¹¹⁾ 따라서 문학·미술과 함께 추상적인 예술로 고려되는 음악분야가 하나의 綱으로 분류되므로써 그동안 문제시되어온 막대한 양의 음악자료를 분류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술류 중 하나의 綱으로 전개된 670 音樂은 다음의 <표 4>에서와 같이 음악이론 및 기법(671), 음악의 종류(672 종교음악, 673 성악, 674 극음악·오페라, 675 기악합주), 악

10) 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0. p.6.

11)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 편.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243.

기의 종류(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 677 현악기, 678 취주악기), 國樂(679)으로 전개되어 있다¹²⁾. 이것은 초판부터 음악의 전체적인 구성을 음악이론 및 기법, 음악의 종류, 악기의 종류 및 국악으로 구분하여, 음악이론을 우선순위로 한 후 종교류(200)와의 조기성을 위해 종교음악을 앞세우고 음악의 발생순서에 따라 성악 다음에 기악을 전개하고 다음으로 우리의 음악인 국악을 전개한 것이다.

〈표 4〉 KDC 제4판 670 音樂의 要目구분

670	音樂 Music
671	음악이론 및 기법 Theory and technique of music
672	종교음악 Sacred music
673	성악 Vocal music
674	극음악, 오페라 Dramatic music, Opera
675	기악합주 Instrumental ensembles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 Keyboard instruments and percussion instruments
677	현악기 String instruments
678	취주악기 Wind instruments
679	國樂 Korean music

이상의 음악분야의 要目구분은 DDC·NDC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구성이 음악의 이론보다는 실천, 특히 연주중심과 서양음악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독립과학으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음악학과 음악학의 제분야 및 각국의 민족음악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要目的 구분 및 배열은 본 KDC 제4판이 DDC 제20판과 NDC 제9판 시안을 참고하였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DC의 완전개정판인 제20판의 음악분야보다는 제19판까지의 음악분야 전개에 더욱 가깝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6판을 참고로 한 초판의 전개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類·綱·目的 변경을 가능한 피한다는 개정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새로운 학문발전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개정방침과는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要目 중 맨 하위인 679에 배정된 國樂은 우리의 고유음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철학이 151로, 한국헌법이 362.11로, 한국요리가 594.51로, 한국언어가 710으로, 한국문학이 810으로, 한국역사가 911로, 지역구분표에서의 한국이 -1 아시아 내의 -11로 전개된 것과는 다르게 배정되어 조기성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드러난다.

12) Ibid., p.252.

3. 細目の 분석

KDC 제4판 음악분야의 각 要目에 따른 細目の 배열체계는 본 분류표에서 구성한 음악이론 및 기법(671), 음악의 종류(672-675), 악기의 종류(676-678) 및 國樂(679)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 細目の 분석에 앞서 먼저 음악분야 일반의 전개상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KDC제4판 음악일반(670)의 細目구분

670	음악
670.1	음악철학 및 음악미학
670.7	지도법 및 연구법
670.9	음악사, 평론

이상의 음악일반의 細目배열은 음악철학 및 음악미학(670.1), 지도법 및 연구법(670.7), 음악사·평론(670.9)만을 전개하고, 나머지 細目 즉 670.1 - 670.6과 670.8은 공기호이다. 전개된 3개의 細目 즉 670.1, 670.7, 670.9는 본 분류표의 표준구분표 및 예술일반의 전개와 조기성을 갖 으면서, 그 중 670.9에는 음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사에 평론을 추가시키고 있다.

KDC 제4판에서 음악의 이론부문을 전개한 유일한 要目인 671 음악이론 및 기법에 대한 細目전개는 <표 6>에 전개된 바와 같이 음악원리(671.1), 악전(671.2), 화성·화성학(671.3), 대위법(671.4), 음악형식(671.5), 작곡·연주(671.6), 음악의 녹음(671.8) 및 기타 제목(671.9)으로 전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671.2-671.5에 전개된 악전, 화성·화성학, 대위법, 음악형식 등은 작 곡을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음악학의 제분야에서 얻어진 이론적인 성과물들이다. 또한 671.6 작곡·연주는 음악에 있어서 이론부분이 아니라 실천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671.8 음악의 녹음은 음악자료의 유형에 따른 음반과 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機器들을 분류하도 록 한 것으로 음악이론 및 기법의 細目으로 취급하기에는 무리이다.

<표 6> KDC 제4판 음악이론 및 기법(671)의 細目구분

671	음악이론 및 기법
671.1	음악원리
671.2	악전
671.3	화성, 화성학
671.4	대위법

671.5	음악형식
671.6	작곡, 연주
671.7	
671.8	음악의 녹음
671.9	기타제목

음악에 관한 모든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인 音樂學(musicology)은 특히 18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독립과학으로서 계속 발전하여 음악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여 왔다. 따라서 많은 분과학들이 출현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류표의 음악분류는 음악의 이론 즉 음악학을 도외시한 연주중심의 분류를 전개하고 있다. 게다가 음악의 이론부분을 전개한 要目(671)에서조차도 음악학과 음악학의 제분야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분류기호 672-675에 전개된 음악의 종류에서는 672 종교음악, 673 성악, 674 극음악·오페라, 675 기악합주로 구분하여 <표 7>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음악의 연주분야 중 하나인 기악은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으로서 악기의 분류와 그 편성에 따라 연주가 달라진다. 본 분류표에서의 기악분류는 675-678의 4개 要目에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편성에 의한 기악인 675 기악합주는 음악의 종류로 구분하고, 각 악기의 분류에 의한 기악은 다음에 언급할 676-678의 악기의 종류로 구분하므로써 혼돈을 일으킨다.

<표 7> KDC 제4판 음악의 종류(672-675)의 細目구분

672	종교음악	673	성악
672.1		673.1	성악이론 및 기법
672.2	불교음악	673.2	합창 및 합창곡
672.3	기독교음악	673.3	독창 및 중창
672.4-9	기타 종교음악 (240-290과 같이 구분)	673.4	민속음악
		673.5	대중음악, 대중가요, 유행가
		673.6	단체가
		673.7	학생 및 교가
		673.8	가곡
		673.9	국가 및 국민가

674	극음악, 오페라	675	기악합주
674.1	오페라 및 기타 극음악의 작곡	675.1	이론 및 기법
674.2	가극, 오페라, 뮤지컬	675.2	교향악단 및 관현악
674.3	오페레타(경가극)	675.3	관현악을 위한 기타 음악
674.4	칸타타	675.4	독립전주곡
674.5	부수극음악	675.5	협주곡
674.6	라디오음악	675.6	실내악
674.7	텔레비전음악	675.7	경음악, 경음악단
674.8	영화음악	675.8	악대, 리듬악대
674.9	기타 극음악	675.9	

이 중 672 종교음악은 종교류와의 조기성을 고려하여 672에 배정한 것으로, 細目전개는 초판부터 제4판까지 총12항목(조기성에 의해 구분 전개되는 것은 제외)으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똑같이 전개되어 있다. 종교음악의 細目은 <표 7>에서와 같이 크게 불교음악, 기독교음악 및 기타 종교음악으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는데, 이 중 기타 종교음악은 종교류의 240-290과 같이 구분하므로써 조기성을 갖는다. 따라서 기타 종교음악은 도교음악(672.4), 천도교음악(672.5), 神道음악(672.6), 바라문교·인도교음악(672.7), 회교음악(672.8), 기타 제종교음악(672.9)으로 전개된다 할 수 있다. 또한 이 중 기타 제종교음악은 發祥國에 따라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을 하므로써 이들과 조기성을 갖고 각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의 음악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종교음악과 조기성을 갖는 종교류의 구분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은 종교, 한국고유의 종교 또는 종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각 종교를 8개 綱目(220-280)에 배정하였고 기타 제종교를 290에 배정하였다고¹³⁾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류에서 210 비교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綱은 672 종교음악의 細目과 조기성을 갖는다. 그리고 종교류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종교공통구분은 각 종교에 내포된 공통적 특성을 추출하여 각 종교의 특이한 주제나 의식을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조기성기호로 각 종교 및 교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¹⁴⁾ 이 중 종교음악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음악이란 종교의식이나 그 종교의 포교상의 필요에 따라 발달한 음악으로 거의 모든 종교는 각각 독자적인 음악을 발전시켜 왔는데, 종교에 따라 기독교와 같이 종교음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온 종교가 있는가 하면 이슬람교와 같이 종교의식에 있어 음악에 소극적

1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 편. op. cit., p.75.

14) Ibid., p.76.

인 종교가 있기도 하다. 또한 민족적·지역적한계를 넘어서 보편적인 종교로 발전해 온 세계 종교, 즉 힌두교·불교·유태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가 있기도 하다.¹⁵⁾ 따라서 종교음악의 細目구분은 종교류와의 조기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음악 중 종교음악의 특성이 배제된 감이 있다. 또한 불교음악(672.2)과 기독교음악(672.3)에 있어서도 이들 각 종교에 의해 형성된 음악 형식 중 제외된 것들이 있다. 그리고 672.34에 전개된 모우텟(Motet)은 성악곡의 중요한 분야로서 다성부 종교곡의 일종으로¹⁶⁾ 모테트(motet)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 초판과 수정판에서는 모테르 motets로, 제3판에서는 모우텟(motet)으로 되어 있다.

음악의 연주분야 중 하나인 673 성악의 細目전개는 역시 <표 7>에서와 같이 성악이론 및 기법(673.1), 합창 및 합창곡(673.2), 독창 및 중창(673.3), 민속음악(673.4), 대중음악·대중가요·유행가(673.5), 단체가(673.6), 학생 및 교가(673.7), 가곡(673.8), 국가 및 국민가(673.9)로 전개되어 있다. 이것은 성악이론 및 기법을 맨 앞에 전개한 후 성악을 성악의 발생순서와는 달리 큰 성악음악에서 작은 성악음악 순으로 전개하고, 그 하위인 673.4-673.9에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의한 음악들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중 673.4-673.9에 전개된 사회적 기능에 의한 이들 음악은 음악의 체계에 의한 성악과는 별도의 다른 음악분야로서 본 성악 분류에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문이다.

성악은 人聲에 의한 음악의 총칭으로, 성악의 체계는 먼저 연주형태에 의해 독창·중창·합창으로 나뉜다. 이것은 다시 각 音域에 의해 독창은 여성·남성 및 어린이로, 중창과 합창은 각각 여성·남성·혼성 및 어린이로 나뉘게 된다. 또한 독창 중 여성독창은 소프라노·메조 소프라노 및 알토로 남성독창은 테너·바리톤·베이스로 나뉘고, 여성·남성 및 혼성합창은 2중창·3중창·4중창·5중창·6중창으로 나뉜다. 그리고 합창 중 여성합창은 여성2부합창·여성3부합창·여성4부합창으로, 남성합창은 남성2부합창·남성3부합창·남성4부합창으로, 그리고 혼성합창은 혼성3부합창과 혼성4부합창으로 구분된다.¹⁷⁾ 따라서 이들의 객관화된 성악의 체계가 성악분류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674 극음악, 오페라의 細目전개는 역시 <표 7>에서와 같이 오페라 및 기타 극음악의 작곡(674.1), 가극·오페라·뮤지컬(674.2), 오페레타(674.3), 칸타타(674.4), 부수극음악(674.5), 라디오 음악(674.6), 텔레비전음악(674.7), 영화음악(674.8) 및 기타 극음악(674.9)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要目들에서 맨 앞에 이론 및 기법을 배정한 것과는 달리 오페라 및 기타 극음악의 작곡을 전개한 후 각종 극음악을 전개한 것이다.

15) Wilfred Cantwell Smith. "Religion," In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Propaedia ; Outline of Knowledge and Guide to the Britannica*. 15th ed. Chicago : Encyclopaedia Britannica, 1986. p.306.

16)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6. p.497.

17) 한경신. 음악분야의 새로운 분류표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14.

그러나 이 중 674.2 가극·오페라·뮤지컬과 674.3 오페레타에 있어서 가극은 오페라를 말하며 오페레타는 오페라의 한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뮤지컬을 별도의 하나의 細目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674.4 칸타타는 바로크시대에 발전한 대규모 성악곡의 한 형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로 교회음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극음악에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674.5 부수극음악은 674.9 기타 극음악에서 취급해야 하고, 674.6 라디오 음악과 674.7 텔레비전음악은 모두 오늘날 전파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음악이므로 방송 음악으로 통합한 후 다음 細目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극음악이란 종합예술적인 사고에 의해 이루어진 음악으로 오페라를 비롯하여 뮤지컬·판토마임·가면극·영화음악·방송음악·연극음악·무용음악 등이 있다.¹⁸⁾ 따라서 이들 모든 극음악이 균등하게 극음악의 細目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75 기악합주의 細目전개는 역시 <표 7>에서와 같이 이론 및 기법(675.1), 교향악단 및 관현악(675.2), 관현악을 위한 기타 음악(675.3), 독립전주곡(675.4), 협주곡(675.5), 실내악(675.6), 경음악·경음악단(675.7), 악대·리듬악대(675.8)로 전개되고 675.9는 공기호이다. 이것은 악기의 편성에 의한 기악을 분류한 것으로, 기악합주에 대한 이론 및 기법을 맨 앞에 전개한 후 DDC와 같이 큰 기악음악에서 작은 기악음악 순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중 675.4 독립전주곡은 종교적 또는 세속적 음악작품의 시작 또는 도입부분을 별도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악기의 편성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는 본 기악합주의 細目으로 배정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악기의 편성에 의한 기악은 기악독주, 실내악(chamber music) 및 관현악(orchestra)으로 나뉘어진다. 이들을 성악의 독창·중창·합창에 비교하면 독주·중주·합주가 될 것이다. 이 중 기악독주는 각 악기에 따른 독주를 말하는 것으로, 분류기호 676-678의 악기의 종류에 의한 분류에서 언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내악은 둘 이상의 聲部를 한 사람이 하나씩의 성부를 맡아 동시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각 악기의 그룹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관현악은 많은 수의 다양한 악기에 의한 편성의 연주형태로서 각각의 파트를 여러개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으로, 규모에 따라 light orchestra·chamber orchestra·symphony orchestra·orchestras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기악합주의 細目에서는 편성에 의한 기악 중 실내악과 관현악의 균형있는 분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분류기호 676-678에 전개된 악기의 종류는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 677 현악기, 678 취주악기로 구성되어 <표 8>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악기의 종류를 건반악기 및 타악기·현악기·취주악기로 3구분한 것으로, 유럽적인 전통으로부터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3분법인 현악기·관악기·타악기의 악기분류에서 현악기와 타악기로부터 건반악기를 분

18) Ibid., p.157.

리시킨 4분법으로 구분한 후 건반악기와 타악기를 합하여 3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악기의 종류 구분은 서양의 악기분류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이들의 細目역시 서양악기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표 8> KDC 제4판 악기의 종류(676-678)의 細目구분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	677	현악기	678	취주악기
676.1	이론 및 기법	677.1		678.1	이론 및 기법
676.2	피아노	677.2	바이올린	678.2	트럼펫
676.3	하프시코드	677.3	첼로	678.3	트롬본
676.4	전자음악	677.4	궁현악기	678.4	호른 및 기타 금관악기
676.5	오르간	677.5	하프	678.5	피리악기류
676.6	전자오르간, 반전자오르간	677.6		678.6	금엽취주악기 (舌樂器)
676.7	리드오르간	677.7	밴조	678.7	쌍금엽취주악기
676.8	기타 건반악기	677.8	치터	678.8	베이스쌍금엽 취주악기
676.9	타악기	677.9	기타발현악기	678.9	

그러나 본 악기의 종류의 要目에서는 앞서 언급한 4구분된 악기의 종류에서 건반악기와 타악기가 합하여 하나의 要目を 이름에 따라 타악기가 하나의 細目(676.9)에 배정되므로써 형평성면에서 문제시된다. 또한 오늘날 전기에너지의 도움으로 소리를 내는 전자악기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악기분류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악기 역시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 내의 細目인 676.4 전자음악, 676.6 전자오르간·반전자오르간으로 전개되어 역시 형평성면에서 문제시될 뿐만 아니라 악기의 시대적 발전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민속악기를 포함시킬 수 있는 악기분류법으로 20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아온 Hornbostel-Sachs의 악기분류법이¹⁹⁾ 대두됨에 따라 DDC 제20판이나 음악분야의 학술적인 국제서지인 *RILM Abstracts*에서는 전통적인 악기분류에 이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KDC에서도 세계적인 악기분류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이들의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분류기호 676-678에 전개된 악기의 종류에 대해 각 要目에 따른 細目の 전개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의 細目전개는 <표 8>에서와 같이 이론 및

19) Erich M. Hornbostel and Curt Sachs. "Systematik der Musikinstrumente : ein Versuch." *Zeitschrift für Ethnologie* Heft 4, U.5(Jahrg, 1914), pp. 553-590.

기법(676.1), 피아노(676.2), 하프시코드(676.3), 전자음악(676.4), 오르간(676.5), 전자오르간·반전자오르간(676.6), 리드오르간(676.7), 기타 건반악기(676.8) 및 타악기(676.9)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건반악기에 대한 이론을 맨 앞에 배정한 후, 서양의 건반악기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타악기를 가장 후위의 細目에 배열한 것이다. 그리고 이 중 676.9 타악기 역시 타악기에 대한 이론을 가장 상위인 676.91에 배정한 후, 서양의 타악기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악기의 종류 중 타악기와 현악기로부터 건반악기가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반악기 및 타악기의 細目전개는 건반악기 중심으로 전개하고 전통적인 3분류법에 해당하는 타악기는 맨 하위의 하나의 細目으로 전개되어 형평성면에서 문제시된다. 따라서 건반악기에 해당하는 각종 악기들과 타악기에 해당하는 각종 악기들이 동등하게 분류되지 못하므로써 역시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각종 건반악기와 타악기의 배열순서에 대한 기준이 없고, 중간에 악기가 아닌 전자음악(676.4)을 배정하므로써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건반악기는 건반을 눌러서 소리를 내게 하는 악기로, 그 구조에 따라 건반을 누르면 ① 해머가 강철줄을 때려 음을 내는 것 ② 작은 강철판을 때려서 음을 내는 것 ③ 단첸트라는 것이 줄을 튀겨서 음을 내는 것 ④ 바람의 힘으로 음이 나는 것 ⑤ 전기의 힘으로 음이 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중 ①과 ②는 때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므로 하나로 취급할 수 있고, ⑤는 전기장치의 스피커를 써서 음을 내는 것으로 전자악기에 해당될 수 있다.²⁰⁾ 또한 타악기는 주로 때려서 음을 내는 악기로, 일정한 음높이를 가진 有律樂器(definite pitch)와 일정한 음높이를 가지지 않은 無律樂器(indefinite pitch)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건반악기는 그 구조에 따라 타악기는 음높이의 有無에 따라 우선 구분한 후, 각 해당악기를 분명한 기준에 따라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677 현악기의 細目전개는 <표 8>에서와 같이 바이올린(677.2), 첼로(677.3), 궁현악기(677.4), 하프(677.5), 밴조(677.7), 치터(677.8) 및 기타 발현악기(677.9)를 전개하고, 677.1과 677.6은 공기호로 남겨두고 있다. 이것은 서양의 현악기를 중심으로 각종 악기와 현악기의 그룹 즉 궁현악기, 발현악기를 혼합하여 전개하므로써 형평성면에서 문제시된다.

그러나 현악기란 絃을 발음체로 하여 뽑을 내는 악기로 연주방법에 따라 擦絃樂器·撥絃樂器·打絃樂器로 구분된다. 이 중 활현악기는 본 분류표의 궁현악기(677.4)와 같은 뜻으로 바이올린·첼로 등과 같이 활로 줄을 마찰시켜 음을 내는 것을, 발현악기는 하프·기타 등과 같이 손가락이나 손톱·피크 등으로 뜯거나 통겨서 음을 내는 것을, 그리고 타현악기는 피아노와 같이 줄을 때려서 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오늘날 현악기와 타악기로부터 건반악기가 분리됨에 따라 이들 악기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현악기의 그룹과 이에 따른 각종 악기를 균등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 한경신(1994). op.cit., p.142.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와 678 취주악기에서는 細目전개에 있어서 맨 상위에 이론 및 기법을 전개한 것에 반해, 현악기에서는 이를 공기호로 남겨두므로써 일관성이 결여된다.

또한 678 취주악기의 細目전개는 <표 8>에서와 같이 이론 및 기법(678.1), 트럼펫(678.2), 트롬본(678.3), 호른 및 기타 금관악기(678.4), 피리악기류(678.5), 금엽취주악기(678.6), 쌍금엽취주악기(678.7), 베이스쌍금엽취주악기(678.8)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서양의 취주악기를 중심으로 먼저 취주악기 중 금관악기를 악기별로 전개한 후, 목관악기는 목관악기의 종류별로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취주악기(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管 내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악기재료의 기원에 따라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로 구분된다. 또한 이 중 목관악기는 발음체의 구조에 따라 플룻·피콜로와 같이 리드가 없는 無簧악기, 클라리넷·색소폰과 같은 홀리드 악기, 그리고 오보에·파곳과 같은 겹리드악기로 구분된다.²¹⁾ 따라서 이들 취주악기의 그룹과 이에 따른 각종 악기들을 균등하게 수용하여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항목명칭에 있어서 678.5-678.8에 전개된 목관악기군의 명칭은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漢字用語이므로 무황·홀리드·겹리드악기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고유음악을 전개한 679 國樂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DC가 우리나라의 표준분류법으로서 우리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편리한 분류법의 편찬을 目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학·한국언어·한국문학·한국역사 등의 분류와는 달리 맨 하위에 <표 9>와 같이 배정·전개되어 있어 조기성면에서 뿐만 아니라 본 분류표의 목적면에서도 문제시된다.

이것은 NDC에 있어서 일본고유의 음악인 邦樂이 하위 細目인 768에 배정된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國樂부문의 전개는 오늘날 학문과 연주에 있어서의 많은 발전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제4판에서 몇 개의 주기가 추가된 것외에는 초판부터 4판까지 총 52항목으로 똑같이 전개되어 있다.

<표 9> KDC 제4판 國樂(679)의 細目구분

679	國樂
679.1	국악이론 및 기법
679.3	성악
679.4	창극
679.5	諸奏樂
679.7	현악기
679.8	취주악기

21) 음악대사전. op. cit., pp.499-500.

이상의 국악분류는 <표 9>에서와 같이 먼저 국악이론 및 기법, 성악, 창극, 諸奏樂, 현악기, 취주악기, 타악기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는데, 이 중 타악기는 취주악기 내에서 679.89에 두고 있다. 이것은 <표 4>에 전개된 바와 같이 본 음악분야의 要目전개와 거의 조기성을 갖고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조기성에서 제외된 것도 있는데 이들은 첫째, 672 종교음악에 해당하는 679.2와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에 해당하는 679.6이 공기호로 남아있고 둘째, 초판부터 제3판까지 678 취주악기 내의 678.9 타악기가 제4판에서는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 내의 676.9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國樂에서는 여전히 취주악기 내에 배정되어 있다. 게다가 3개의 공기호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기의 3분법 중 중요한 타악기(679.89)가 나머지 현악기(679.7) 및 취주악기(679.8)와 동등하게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본 분류표의 676.9 타악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본 국악분류는 국악분야 전체를 이론·성악 및 창극부문에 각각 하나씩의 細目을 배정한 반면 기악부문에 3개의 細目을 배정하여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국악분야의 전체적인 細目的 구성 역시 음악분야의 要目的 구성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이론보다는 실천, 특히 연주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음악의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음악학·작곡·동요·무용음악·종교음악 등 전개되지 않은 분야들이 발견된다. 그리고 679.5 諸奏樂에 있어서 679.52 周頌雅樂과 679.53 聖明樂, 燕門鼓吹樂 등의 중국음악들이 포함되어 있어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본 분류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國樂의 용어는 최근에 韓國音樂이란 용어로 대체되고 있는 경향이다. 1957년 이해구 박사의 논문집 「韓國音樂研究」에서 한국음악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 중앙대학교의 國樂科가 韓國音樂科로 학과명칭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각 문헌과 논문에서 國樂 보다는 韓國音樂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²²⁾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악과 한국음악을 같이 항목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된다.

IV. KDC 제4판 음악분야 전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KDC의 음악분류는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판부터 제4판까지 특별한 개정 및 확장 없이 초판의 전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해 왔다. 특히 초판부터 제3판까지는 총 233항목을 거의

22) 한경신. "한국음악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2호(98.6), p.20.

그대로 전개하고 있다. 제4판에 와서야 이들 음악분류 전개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5개의 새로운 항목과 약간의 주기가 추가되고, 분류항목의 명칭이 약간 변경된 것이 있으며, 세분 및 축약이 각각 1곳에서 이루어진 것 뿐이다.²³⁾ 따라서 제4판의 음악분류 역시 초판의 전체적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같은 KDC 제4판 음악분류에 대하여 제Ⅲ장에서 분석한 음악분야 전개상황에 대하여 음악주제의 특성을 토대로 우리나라 표준분류표로서의 전개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要目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4>에 전개된 KDC제4판 670 음악의 要目구분 및 배열순서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DC 제4판은 제Ⅲ장에서 언급한 5개의 개정방침을 기본으로 하여 DDC 제20판과 일본십진분류법 제9판 시안 등을 참고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특히 음악분야에 있어서의 要目구분과 배열순서는 분류기호 679에 우리의 음악인 國樂을 배정한것외에 거의 DDC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0 음악의 要目전개에서는 DDC 제19판까지의 음악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KDC 초판이 참고로 한 제16판의 전개상황과도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특히 DDC 제20판의 음악분류는 10여년간의 계속적인 개정작업의 토대위에 이전의 판들을 거의 참고로 하지 않은 새로운 완전개정표로서,²⁴⁾ 지금까지 DDC의 역사에서 시도되어온 것 중 가장 철저하게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KDC 제4판 음악분류에서는 DDC의 이러한 노력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개정판은 새로운 음악주제발전의 추세와 참고한 분류표들의 음악분야 전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토대위에 분류전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은 홑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 문학·미술과 함께 추상적인 예술에 속하며 예술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학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C의 음악분류는 DDC와 NDC의 음악분류를 그대로 답습하여 예술 중 문학은 800에 별도의 主類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예술류로 통합한 후 미술중심의 예술류를 전개하고 음악에는 하나의 綱을 배정하여 모든 음악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DDC의 초판의 기본골격의 고수라는 편집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따른 NDC·KDC 역시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KDC 제4판의 類·

23) 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의 개정시안 ; 예술, 언어, 문학, 역사의 部” 《도서관문화》 제35권 2호(94. 3·4), pp.5-7. 참조

24) Melvil Dewey ; John Phillip Comaromi 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Albany, New York : Forest Press, 1989. v.3, p.548.

綱·目的 변경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는 개정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음악학문의 역사 및 발달이나 이에 따른 막대한 양의 각종 음악자료를 고려해볼 때 하나의 綱에 모든 음악을 전개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KDC 제4판 음악분류의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4개, 즉 음악의 이론 및 기법(671), 음악의 종류(672-675), 악기의 종류(676-678) 및 국악(679)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악의 종류는 종교음악(672)·성악(673)·극음악(674) 및 기악합주(675)로, 악기의 종류는 건반악기(676)·현악기(677) 및 취주악기(678)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은 이론에 실천이 동반되는 대표적인 학문이다. 따라서 음악의 체계는 우선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이론은 모든 음악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활동으로 음악학이라 불리운다. 또한 실천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업인 작곡(창작)과 만들어진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인 연주로 구분된다. 그리고 연주는 표현매체에 따라 인간의 목소리인 성악과 인간에 의해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악인 기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음악은 이상의 음악의 체계와는 별도로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따른 종교음악·대중음악·무용음악·극음악·민속음악 등이 있는데, 이들 역시 대체로 국제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음악의 전체적인 구성 즉 要目的 전개는 이상의 음악의 체계에 의해 구분된 것과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의한 각종 음악들이 균형 있게 전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KDC 제4판 음악분야 분류의 전체적인 구성은 또한 음악의 이론보다는 실천, 특히 연주중심과 서양음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음악의 실천 중 연주에 앞서는 장르인 작곡은 거의 도외시되어 있다.²⁵⁾ 이것은 본 음악분류의 기초가 되었던 DDC 및 NDC의 것과 유사한 것이다. KDC의 음악분류 중에는 음악에 관한 모든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인 음악학의 항목조차도 없다. 그러나 음악학은 18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독립과학으로서 계속 발전하여 음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학의 제분야인 체계음악학·역사음악학·응용음악학과²⁶⁾ 이에 따른 각 분과학들이 출현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음악학과 음악학의 각 분야 및 분과학들을 본 분류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KDC는 우리의 표준분류법으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법의 편찬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분류는 679에 우리의 음악인 國樂을 배정한 것외에는 서양음

25) KDC 음악분류에 있어서 작곡에 대한 항목은 671 음악이론 및 기법 내의 671.6 작곡, 연주로 전개되어 음악의 실천부분이 아닌 이론부분의 한 細目으로 되어 있다. 또 작곡이 몇 개의 음악항목에 부수적으로 전개된 것이 있는데, 674.1 오페라 및 기타 극음악의 작곡, 675.11 기악합주작곡, 673.161 성악작곡, 675.81 악대를 위한 작곡 등이다.

26) 홍정수. "음악학." 《음악과 민족》 제3호('92), p.278.

악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물론 오늘날 서양음악이 세계음악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음악 중심의 연구 및 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 지역의 인구구성·정보생산량과 유통량 및 우리의 표준분류표인 본 분류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서양음악 뿐만 아니라 각국의 민족음악까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음악분류에서 도외시된 작곡은 樂曲을 창작하는 것으로 연주에 앞서는 실천의 주요분야이다. 따라서 작곡은 실천부문에서 별도로 연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곡을 위한 제분야들이 이들의 細目으로서 수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음악분야의 要目 구분 및 배열에 있어서 맨 하위에 배정된 國樂(679)은 우리의 고유음악인 한국음악을 말한다. 이것은 음악분야 역시 우리나라의 표준분류법으로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분류를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NDC에서 일본음악인 邦樂에 하나의 要目 즉 768을 배정하여 일본음악을 전제한 것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본 분류표에 있어서 한국철학이 151로, 한국헌법이 362.11로, 한국언어가 710으로, 한국문학이 810으로, 한국역사가 911로 전개된 것과는 달리, 한국음악 즉 국악은 679에 배정되므로써 조기성면에서 문제시 된다. 이것은 NDC에 있어서 일본사가 210으로, 일본어가 810으로, 일본문학이 910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음악인 邦樂이 768로 배정된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음악인 국악, 즉 한국음악의 要目배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여섯째, 음악은音を 재료로 하는 시간예술이자 청각예술이다. 따라서 음악자료는 음악문헌·악보 등과 같은 인쇄에 의한 기록물과 음반·테이프 등과 같은 음에 의한 기록물인 녹음자료, 그리고 비디오테이프·비디오디스크 등과 같이 음과 영상을 동시에 기록한 비디오자료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음악분야의 분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자료의 특성상 모든 음악자료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분류를 전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KDC 제4판의 음악분류는 음악문헌 중심의 분류를 전개하되, 악보에 대해서는 “특정음악이나 악기만을 위한 악보는 해당음악이나 악기에 분류한다. 이때 분류표에 악보에 대한 분류기호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음악이나 악기에 관한 기호를 사용한다. 다만 악보를 별도로 분류하고자할 경우에는 해당음악이나 악기에 대한 분류기호에 -8을 추가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²⁷⁾ 하고 있으며, 녹음자료에 대해서는 분류기호 671.8 음악의 녹음이란 항목에 “축음기·오디오·음반 등을 포함한다”고²⁸⁾ 하고 있어 모든 녹음자료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악보의 분류에 있어서 악보에 대한 분류항목이 전개되지 않은 음악이나 악기가 대

27)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 편. op. cit., p.252.

28) 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op. cit., p.802.

부분이고, 해당음악이나 악기에 관한 기호를 그대로 사용한다고해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악문헌과 악보가 전혀 구분되지 않아 혼돈을 일으킨다. 또 악보에 대해 해당 분류기호에 -8을 추가하여 구분한다해도 다른 분류기호와 중복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악보를 연주하여 음으로 기록한 녹음자료의 분류에 있어서 녹음자료와 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機器가 하나의 細目에 모두 분류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본 분류표에서 참고한 DDC의 경우는 문헌중심의 분류를 전개하되, 해당 분류기호 앞에 문자나 기호를 덧붙이므로써 음악문헌·악보 및 녹음자료를 구분하고 있다.²⁹⁾ 또한 NDC는 문헌중심의 분류를 전개하고 개개 악보에 대해 M의 기호를 붙여 별치하도록 하므로써 음악문헌과 악보를 구분하고 있다.³⁰⁾ 따라서 앞으로의 KDC는 이들을 참고로 하되 다양한 음악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細目の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음은 KDC 제4판 음악분야의 각 要目에 따른 細目の 분류전개 상황에 대하여 본 음악분류에서 구성한 바와 같이 음악이론 및 기법(671), 음악의 종류(672-675), 악기의 종류(676-678) 및 국악(679)으로 구분하여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1) 671 음악이론 및 기법에 있어서 첫째, 細目전개는 <표 6>에서와 같이 음악원리, 악전, 화성·화성학, 대위법, 음악형식, 작곡·연주, 음악의 녹음 및 기타 제목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① 671.2-671.5에 전개된 악전, 화성·화성학, 대위법, 음악형식은 작곡을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작곡에서 취급해야 하고, ② 671.6 작곡·연주는 음악의 이론이 아닌 실천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실천부문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③ 671.8 음악의 녹음은 음악자료의 유형에 따른 음반과 이를 들을 수 있게 하는 機器들을 분류하도록 한 것으로 음악의 분류전개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순수한 음악의 녹음에 관해 전개하고자 한다면 음악학 중 응용음악학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要目は 음악에 관한 이론 및 기법을 다루는 항목이나, 要目的 항목명칭과 細目的 전개에 있어서 음악에 관한 모든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인 음악학과 음악학의 제분야 및 이에 따른 각 분과학들이 완전히 도외시되어 있다. 따라서 要目的 항목은 NDC에서와 같이³¹⁾ 음악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고, 이의 細目 역시 음악학의 제분야와 각 분과학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2) 672-675 음악의 종류에서는 <표 7>에서와 같이 종교음악(672), 성악(673), 극음악·오페라

29) Melvil Dewey ; John Phillip Comaromi ed., op.cit., v.3, p.548.

30)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5. 本表編, p.362.

31) Ibid., p. 363.

(674), 기악합주(675)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을 각 要目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672 종교음악에 있어서 첫째, 細目전개는 <표 7>에서와 같이 불교음악·기독교음악 및 기타 종교음악으로 구분하고, 기타 종교음악은 종교류의 240-290과 같이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음악은 불교음악, 기독교음악, 도교음악, 천도교음악, 神道음악, 巴里문교·인도교음악, 회교음악 및 기타 제종교음악 순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종교류를 구분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은 종교, 한국 고유의 종교 또는 종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각 종교를 배정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종교음악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라 종교음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온 종교가 있고 종교음악에 소극적인 종교도 있다. 따라서 종교음악의 細目전개는 종교류와의 조기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종교음악의 특성과 우리나라에서의 종교 및 종교음악 활동을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 중 특히 기독교는 예배의식·종교활동 및 포교에 있어서 음악을 중요시하여 적극적으로 다양한 예술적인 종교음악을 육성해 왔다. 따라서 종교음악은 기독교음악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細目 중 기독교음악(672.3)에는 기독교에 의해 형성된 음악형식 중 제외된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개신교이외의 가톨릭교·그리스정교 및 성공회에서 발전한 음악들로 이들 모든 음악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672.34 찬송가는 기독교음악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찬미가와 같은 것이나 672.39 회중의 합창에 찬미가를 포함하므로써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672.34에 전개된 모우뎃(Modet)은 다성부 종교곡의 일종인 모테트(motet)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초판부터 제3판까지 motet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하겠다.

② 673 성악에 있어서 첫째, 細目전개는 <표 7>에서와 같이 성악이론 및 기법, 합창 및 합창곡, 독창 및 중창 그리고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의한 각종 음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사회적 기능에 의한 음악, 즉 민속음악(673.4)·대중음악(673.5)·단체가(673.6)·학생 및 교가(673.7)·국가 및 국민가(673.9)는 음악의 체계에 의해 구분된 성악과는 별도의 다른 음악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며, 성악의 細目은 제Ⅲ장에서 언급한 객관화된 성악의 체계에 따라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악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음악으로 작은 성악음악에서 큰 성악음악, 즉 독창·중창·합창 순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본 성악분류는 DDC에서와 같이 큰 성악음악에서 작은 성악음악 순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발생순서에 따라 작은 성악음악에서 큰 성악음악 순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된다.

③ 674 극음악, 오페라에 있어서 첫째, 細目전개는 <표 7>에서와 같이 오페라 및 기타 극음악의 작곡을 맨 위에 배정한 후 각종 극음악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要目들에서 맨 위에 이론 및 기법을 배정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일관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이 제시되거나 다른 要目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674.2

가극·오페라·뮤지컬과 674.3 오페레타에 있어서 가극은 오페라를 의미하며 오페레타는 오페라의 한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페레타는 오페라 내에서 전개되어야 하고, 오히려 뮤지컬이 별도의 細目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페라에 있어서 오페라의 종류 중 제외된 그랜드오페라·오페라부파·오페라세리아 등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674.4 칸타타는 바로크시대에 발전한 대규모 성악곡의 한 형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로 교회음악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양식이다. 따라서 칸타타는 종교음악 중 기독교음악 내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674.5 부수극음악은 이에 대한 주기가 없어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극음악의 종류에 포함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674.9 기타 극음악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섯째, 674.6 라디오음악과 674.7 텔레비전음악은 전파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음악이다. 따라서 이들을 방송음악으로 통합한 후 다음 細目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細目전개는 극음악의 종류 중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무언극·가면극·발레음악이 674.9 기타 극음악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본 要目的 주요한 細目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이 중 발레음악은 무용음악의 대표적인 양식이나 발레이외에도 다른 무용을 위한 음악들이 있으므로 우선 무용음악으로 전개한 후 그 細目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④ 675 기악합주에 있어서 첫째, 細目전개는 <표 7>에서와 같이 이론 및 기법을 비롯하여 악기의 편성에 의한 기악을 큰 기악음악에서 작은 기악음악 순으로 전개하고 있다. 본 기악합주(675)와 다음에 언급하게 될 악기의 종류(676-678)는 악기로 연주되는 기악음악이다. 그러나 본 음악분류에서는 기악합주를 음악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기악의 관점에서 보면 각종 악기에 의한 기악, 즉 독주가 먼저 발생된 후 기악의 중주와 합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기악분류는 DDC를 따른 것으로 큰 기악음악에서 작은 기악음악 순으로 전개한 것이다. 따라서 본 기악은 NDC에서와 같이 발생순서에 따라 독주에 해당하는 악기의 종류를 먼저 배정한 후 편성에 의한 기악을 전개하되, 기악합주에서도 중주·합주 순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675.4 독립전주곡은 종교적 또는 세속적 음악작품의 시작 또는 도입부분을 별도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악기편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본 기악합주의 細目으로 전개되는데는 무리가 있다. 셋째, 675.8 악대·리듬악대는 주로 관악기의 앙상블, 특히 금관악기의 앙상블과 동일한 개념으로 기악에 있어서 중주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편성에 의한 실내악 내에 전개해야 할 것이다.

3) 676-678 악기의 종류에서는 <표 8>에서와 같이 건반악기 및 타악기, 현악기, 취주악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악기의 3분법, 즉 현악기·관악기·타악기의 악기분류에서 현악기와 타악기로부터 건반악기를 분리시킨 4분법으로 구분한 후, 건반악기와 타악기를 합하여 3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중 타악기가 要目이 아닌 細目으로 배정되므로써 형평성면에서 문제시된다. 또한 오늘날 전자악기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악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細目에 부분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리고 본 악기분류의 한계상 어느 그룹에도 들지 않을 경우와 새로운 악기의 출현에 대비하여 기타악기를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 DDC에서와 같이 새로운 악기분류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악기분류에 Hornbostel-Sachs의 악기분류법도 연관지어주는 것 역시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다음은 본 악기의 종류에 대하여 각 要目別로 細目전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에 있어서 첫째, 細目전개는 <표 8>에서와 같이 건반악기에 대한 이론 및 기법을 맨 앞에 배정한 후 서양의 건반악기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타악기를 가장 후위의 細目(676.9)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타악기는 전통적인 3분류법에 해당하는 오랜 악기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細目으로 전개되어 있어 다른 악기군과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본 건반악기 및 타악기 내에서의 형평성면에서도 문제시된다. 또한 타악기의 이론 및 기법이 676.91로 전개되어 혼돈을 일으킨다. 따라서 악기의 종류 구분 및 이들의 분류기호 배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건반악기 및 타악기의 細目전개에 전자음악(676.4)이 배정되므로써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전자음악은 전자적 수단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으로 전자악기에 따른 細目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細目전개는 주로 악기, 특히 서양악기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제 I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반악기에는 그 구조에 따른 건반악기군이 있고, 타악기에는 음높이의 有無에 따른 타악기군이 있다. 따라서 먼저 이에 따른 악기의 구분이 이루어진 후 그에 따른 해당악기가 전개되므로써 모든 민족악기까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677 현악기에 있어서 첫째, 細目전개는 <표 8>에서와 같이 서양의 현악기를 중심으로 각종 현악기와 현악기군, 즉 궁현악기 및 발현악기를 혼합하여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악기는 제 I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주방법에 따라 찰현·발현·타현악기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細目전개는 먼저 연주방법에 따른 현악기군으로 구분한 후 이에 따른 각종 악기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악기의 종류에 따른 要目 중 676 건반악기 및 타악기와 678 취주악기에서는 細目전개에 있어서 맨 앞에 이론 및 기법을 전개한 것에 반하여, 현악기에서는 이에 공기호로 남겨 두어 일관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거나 677.1에 이론 및 기법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③ 678 취주악기에 있어서 첫째, 細目전개는 <표 8>에서와 같이 서양의 취주악기를 중심으로 먼저 취주악기 중 금관악기를 악기별로 전개한 후 목관악기를 목관악기의 그룹별로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형평성면에서 문제시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細目전개는 제 I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악기재료의 기원에 따라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로 구분한 후, 목관악기는 발음체의 구조에 따른 無簧·홀리드·겹리드 악기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각종 악기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678.5-678.8에 전개된 목관악기군의 항목명칭은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漢字用語이다. 따라서 현재 음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4) 679 國樂에 있어서 첫째, 細目전개는 <표 9>에서와 같이 음악(670)의 要目전개와 조기성을 갖고 국악이론 및 기법(679.1)·성악(679.3)·창극(679.4)·諸奏樂(679.5)·현악기(679.7)·취주악기(679.8)로 구분하고, 타악기는 취주악기 내의 679.89에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 細目전개에 있어서 3개의 공기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기의 종류, 즉 현악기·취주악기·타악기는 동등하게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의 要目전개에 있어서 초판부터 제3판까지 취주악기 내에 전개되었던 타악기가 제4판에서 재배치되어 건반악기와 함께 전개된 것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기호인 679.6에 타악기를 배정하면 음악의 要目과의 조기성을 갖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細目전개는 음악의 要目전개와 마찬가지로 역시 국악의 이론보다는 실천, 특히 연주중심의 국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악의 실천부분 중 작곡이 도외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악 중 그동안 발전해 온 한국음악학과 이들의 제분야 및 분과학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악의 연구대상이 주로 이미 존재한 음악을 대상으로 하나 현재와 미래의 창작한국음악을 위한 작곡과³²⁾ 작곡을 위한 제분야 역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細目전개에는 사회적 기능에 의한 음악 중 종교음악·대중음악·놀이음악 등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 중 국악자료만을 취급하는 도서관에서는 분류기호 배정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들 항목 역시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679.5 諸奏樂의 전개에 있어서 679.52 周頌雅樂과 679.53 聖明樂 燕門鼓吹樂은 중국음악이므로 본 분류전개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要目으로 전개된 國樂의 용어는 제Ⅲ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韓國音樂이란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 용어가 혼용되어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國樂과 韓國音樂을 함께 항목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결 론

이상은 KDC의 음악분야(670)를 대상으로 하여 초판부터 제3판까지의 음악분류 변천과정을 기초로 제4판의 전개상황과 전개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타난 KDC 제4판 음악분류의 전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의 要目 구분과 배열순서는 우리의 음악인 國樂(679)외에는 거의 DDC를 기본으

32) 한경신(1998). op. cit., p.31.

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KDC 제4판은 DDC 제20판을 참고로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실상은 제19판까지의 음악분류를 따르고 있어 DDC의 완전개정표인 제20판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정판에서는 기초자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은 홑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 예술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학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C의 음악분류는 DDC와 NDC를 그대로 답습한 나머지 예술류 중 하나의 綱으로 배정하여 막대한 양의 각종 음악자료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나의 綱에 모든 음악을 전개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綱의 변경을 요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음악분류는 전체적으로 음악의 이론 및 기법, 음악의 종류, 악기의 종류 및 국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음악은 이론에 실천이 동반되는 대표적인 학문으로, 먼저 음악의 체계에 따른 음악이론, 즉 음악학·작곡·연주 및 이에 따른 성악과 기악을 기초로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따른 종교음악·대중음악·무용음악·극음악·민속음악 등과 우리의 한국음악을 수용하여 균형있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음악분류는 음악의 이론보다는 실천, 특히 연주중심과 서양음악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것은 역시 본 분류표의 기초가 된 DDC 및 NDC의 음악분류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음악의 이론부문에 있어서 본 분류표에서 도외시된 오늘날 음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음악학과 음악학의 제분야 및 이에 따른 분과학들이 본 분류표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國樂의에는 서양음악 중심으로 전개된 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표준분류법으로서 우리의 고유음악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민족음악까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고유음악인 國樂은 음악분야의 要目배열에 있어서 맨 하위인 679에 배정되므로써 본 분류표에 있어서 다른 한국 관련 주제와의 조기성면에서 문제시된다. 본 분류표에서는 분류표의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와 관련된 모든 주제에는 숫자 1이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음악, 즉 국악은 679로 배정된 것이다. 따라서 국악 역시 음악주제의 맨 상위에 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국악의 용어는 오늘날의 추세에 따라 한국음악이란 용어를 함께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음악은 음을 재료로 하는 시간예술이자 청각예술로, 음악자료는 음학문헌을 비롯하여 악보·녹음자료·비디오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본 음악분류는 음악문헌 중심의 분류를 전개하되, 악보에 대하여는 특정음악이나 악기에 따라 악보에 대한 분류기호가 있는 경우는 그 기호를 배정하고 없는 경우에는 해당음악이나 악기에 관한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악보를 별도로 분류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음악이나 악기에 숫자 -8을 추가하여 분류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녹음자료에 대하여는 細目 671.8 음악의 녹음에 모든 녹음자료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악보에 대한 분류는 음악문헌과 악보가 거의 구분되지 않아 혼돈을 일으키거나 다른 분류기호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하나의 細目に 모든 녹음자료 및 이들 機器들을 함께 분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기존의 분류표들을 참고로 하면서 다양한 음악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본 분류는 음악의 연주부문에 속하는 성악과 기악에 대하여 673 성악, 675 기악합주, 676-678 악기의 종류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분류전개는 성악과 기악의 발생순서와는 달리 큰 성악과 기악음악에서 작은 성악과 기악음악 순으로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전개는 DDC를 따른 것이나, 음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NDC에서와 같이 발생순서에 따라 작은 음악에서 큰 음악 순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要目的 배열순서에 있어서 기악의 독주에 해당되는 악기의 종류를 상위에 배정한 후 기악합주를 다음으로 전개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악기의 종류(676-678)에서의 악기분류는 건반악기 및 타악기·현악기·취주악기로 구분함에 따라 전통적인 오랜 악기군인 타악기가 하나의 細目으로 배정되어 악기분류의 형평성면에서 문제시된다. 또한 오늘날 악기의 주요한 부문을 이루는 전자악기가 도외시되어 있다. 악기의 분류방법은 고대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악기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도 완전한 악기분류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중 본 악기분류에서 전개한 전통적인 3분법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3분법을 중심으로 구분하되 오늘날의 건반악기와 새로운 전자악기를 포함하여 객관적인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KDC 제4판 음악분류의 문제점들은 초판부터 계속되어온 것으로, 음악주제 및 음악자료에 대한 이해부족과 본 분류표의 구조적인 문제 및 너무 포괄적이고 모순된 개정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 문제점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상세한 세분전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전문음악학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개정판을 위해서는 음악을 비롯한 각 주제분야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DDC와 NDC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준분류표로서의 독자적인 원칙에 따른 분류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자후. "KDC(한국십진분류표) 4관에 대한 제언." 《도서관학논집》 제27집(1997, 겨울호), pp.369-389.
- 나운영. 대학음악통론.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3.
- 박옥화. "한국십진분류법 제4관 철학류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3호(1997, 9), pp.7-22.
-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6.
- 이병수.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68.
- 이보형. "한국전통음악자료의 십진분류방법론." 《문화재》 제9호(1975), pp.41-49.
- 한경신. "DDC에 있어서의 음악분야 분류상의 제문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6집(1994, 6), pp.75-112.
- _____. 음악분야의 새로운 분류표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 "LCC 음악분야의 분류전개에 관한 연구." 《도서관문화》 제36권 1호(1995. 1·2), pp. 24-28
- _____. "The British Catalogue of Music Classification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논문집 (인문 과학편)》 제27집(1997), pp.93-116.
- _____. "한국음악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2호(1998, 6), pp.5-34.
-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64.
- _____. 한국십진분류법. 수정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66.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80.
- _____.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 개정 시안 ; 예술, 언어, 문학, 역사의 部" 도서관문화 제35권 2호(1994, 3·4), pp.4-14.
- _____.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 편.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7.
- 홍정수. "음악학." 《음악과 민족》 제3호(1992), pp.274-289.
- 日本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5.
- Asheim, Lester. *The Humanities and the Library :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Evaluation and Use of Library Materials*. Chicago : ALA, 1957.

- Bryant, Eric Thomas. *Music Librarianship : A Practical Guide*. London : J. Clarke ; New York : Hafner, 1959.
- Dewey, Melvil ; Custer, Benjamin A. 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6th ed. New York : Lake Placid Club Education Foundation , 1958.
- _____.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9th ed. Albany, New York : Forest Press, 1979.
- _____; Comaromi, John Phillip 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Albany, New York : Forest Press, 1989.
- Doren, Mark Van. "Art : Music." in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Propaedia ; Outline of Knowledge and Guide to the Britannica*, 15th ed. Chicago : Encyclopaedia Britannica. 1986. pp.238-244.
- Hassell, Robert H. "Revising the Dewey Music Schedules : Tradition vs. Innov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26, no.2(April/June, 1982), pp.192-203.
- Hornbostel, Erich M. and Sachs, Curt. "Systematik der Musikinstrumente ; ein Versuch." *Zeitschrift für Ethnologie* Heft 4, U.5(Jahrg, 1914), pp. 553-590.
- Sweeney, Russell and Clews, John. *Proposed Revision of 780 Music Based o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Albany, New York : Forest Press, 1980.
- Wachsmann, Klaus. "Instruments, classification of." in Stanley Sadie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 Macmillan, 1980. vol.9, pp.237-245.